



Contents

- 1-1 2026학년도 간호학과 신설
- 1-2 경기도 RISE체계 구축·지원 사업 '2유형 (지역클러스터 육성형)' 선정
- 1-3 클라우드 컴퓨팅 인재양성 체계 구축·운영으로 교육부 평가 최상위 A등급 획득
- 2-1 우즈베키스탄에서 전공 연계 기반 K-Culture 확산 글로벌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성료

- 2-2 고용노동부 주관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및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선정
- 2-3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관
- 2-4 본교,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선정
- 3-1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새롭G 연성캠퍼스 3년 연속 선정
- 3-2 "사랑의 장기기증" 사랑으로 이어지는 삶.
- 3-3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새롭G 연성캠퍼스" 입학식 개최

- 3-4 '2025년 재직자 AID 집중과정: AI 뷰티 테크' 사업 선정
- 4 연성대 우수강의 -사회복지경영과 김병년 교수님
- 5 연성대 우수강의 -경영학과 김동환 교수님
- 6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공간의 즐거움, 도서관 재개관을 맞이하다.
- 7 졸업 앞둔 연성대학교 학생들의 취업 고민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맞춤형 해법

- 8 연성대학교의 겨울 리베라의 비상 리베라가 남긴 이야기
- 9 2025년 연성대학교 양지체전
- 10 연성대학교 가족사를 소개합니다
- 11 입맛 따라 즐거운 미식생활의 시작 연성대학교 학식 메뉴 베스트
- 12-1 공간시간에 있을만한 Hidden Place를 찾아라
- 12-2 여름날 학교에서 듣기 좋은 playlist



2026학년도 신설 간호학과 4년제



2026학년도 간호학과 신설 최종 승인... 안양시 최초 간호학 학사과정 운영 대학으로 도약

본교는 교육부로부터 2026학년도 간호학과 신설을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이로써 본교는 안양시 최초 간호학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번 간호학과 신설은 (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한 「2026학년도 운영개시 전 간호교육 평가 인증」에서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하며 인증을 획득한 데 힘입어 가능했습니다.

교육부의 최종 승인에 따라, 본교는 2026학년도부터 총 60명(정원 내 40명, 정원 외 20명)의 간호학과 학생을 선발해 학사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치위생과, 치기공과, 응급구조과, 작업치료과, 보건의료행정과 등 보건계열 학과들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 교육 특성화 전략의 핵심축으로 기능할 전망이며, 특히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의료인력 수요와 보건복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실질적인 사회적 기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권민희 총장님은 "이번 간호학과 신설은 본교가 지역사회와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윤리적 책임과 임상 전문성, 소통 역량을 고루 갖춘 간호사를 양성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성대학교는 간호인재 양성을 시작합니다

본교, 경기도 RISE체계 구축·지원 사업 '2유형 (지역클러스터 육성형)' 선정

본교는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본교는 2025년부터 5년간 총 70억 원의 국고 및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안양시에서도 예산을 매칭하여 경기지역은 물론 안양지역의 산업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교는 이번 RISE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위해 대내외의 환경을 분석하고,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총체적 교육자산 활용 지역과 함께 미래를 여는 직업교육 허브, 경기도-NEXUS, 연성'과 '지역 클러스터 육성형 인재양성-취창업-정주 혁신 생태계 구축'을 각각 사업의 비전 및 목표로 설정, ▲경기도 지역기반산업(이하 GX산업) 취창업-정주 연성특화 인재양성 캠퍼스 구축 ▲지속가능 지산학연 협력체계 및 가치창출 생태계 조성 ▲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연성련(Learn) 플랫폼 구축 ▲성장과 나눔의 지역대학 실천 공동체 실현 등 4대 전략 하에 총 10개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민희 총장님은 "이번 경기도 RISE체계 구축지원 사업 선정은 우리 대학이 그동안 국가와 지역의 산업사회 발전을 지원하며 축적한 결실과 역량을 경기지역에 접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함의한다. 따라서 앞으로 5년간 경기도는 물론 안양시와 인근지역의 K-뷰티패션·디자인, 소셜·전문서비스, 디지털/ICT 등의 GX산업 분야 맞춤형 전문기술인재 양성, 지산학 협력으로 경기지역 (중소)기업 지원, 생애 주기별 성인/재직자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나아가 지역 현안 공동 해결 등을 통해 지역의 지산학연관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RISE는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Education의 약자로 인구구조와 기술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지역을 잘 아는 광역 자치단체에 국가 고등교육 예산의 일부를 이관해서, 해당 지역 소재 대학의 교육역량을 연계하여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5년간 운영되는 교육부의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본교 클라우드 컴퓨팅 인재양성 체계 구축·운영으로 교육부 평가 최상위 A등급 획득

본교는 교육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이하 신산업특화사업) 2.0' 1유형(기반구축형)에 선정되어 2024년 첫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결과,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본교는 대내외 환경 분석과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대전환을 위한 산·학·연·관 상생형 교육 플랫폼 구현'을 사업의 핵심 목표로 설정,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화 교육과정 및 교수법 혁신 ▲맞춤형 경력개발 지원 강화 ▲산·학·연·관 파트너십 확대 ▲기술선도형 교육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인재양성 체계 확보 등 5대 전략 아래 총 16개의 세부 과제를 도출·운영해왔습니다.

컴퓨터소프트웨어과(정보통신과 참여)가 주관하여 클라우드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3개 학기 동안 개발자(Developments) 및 운영자(Operations) 트랙을 개설하고, 20학점 이상 이수 시 부전공 학위가 수여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융합전공 설계·운영하며 특히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 기반 핵심역량 교육과정을 모듈형으로 구성하고, 학사유연화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전공탐색 교과, 소단위 전공, 융합학기제 및 집중이수제, 학점교류제, 클라우드 온라인 아카데미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타학과 및 타대학 학생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교육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자체 Multi-Cloud Platform Lab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을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선진 PBL 기반 실습실을 마련해 팀 단위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활성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AWS, 메가존클라우드, 디딤365, 솔트웨어, 넥스트클라우드 등의 국내외 클라우드 전문기업을 비롯하여 안양산업진흥원 등 총 31개 기관과 지산학연관협의회를 운영하는 공유·협업 체계를 통해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총 39명의 학생이 클라우드 컴퓨팅 융합전공에 참여하여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통해 전공역량과 문제해결 역량을 함께 키워가고 있고 특히 사업 첫해 짧은 운영 기간에도 응시자 23명 학생이 AWS Certified AI Practitioner 자격증을 전원 취득했고, 이 중 2명은 추가로 3개의 자격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교 권민희 총장님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산업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격변기에, 이번 신산업특화사업 2.0을 통해 클라우드를 모국어처럼 다룰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실무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와 경기지역의 클라우드 대전환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제교류원] 연성대학교, 우즈베키스탄에서 전공 연계 기반 K-CULTURE 확산 글로벌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성료

우리 대학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에서 '글로벌 서비스 러닝(Global Service Learning)'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금번 프로그램은 현지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 대학의 전공을 기반으로 하는 K-Culture 확산 및 글로벌 문화 교류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상호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는 20명의 다양한 학과의 재학생(사회복지과, 항공서비스과, 뷰티스타일리스트과 메이크업 전공, 카페베이커리과, 응급구조과, 게임콘텐츠과, 유아교육과, 치위생과, 치기공과, 영상콘텐츠과)이 참여하였으며, 응급구조과 안희정 교수님과 행정지원처 김정규 선생님께서 프로그램 인솔 및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연성대학교 글로벌서비스러닝 참여 재학생은 타슈켄트 사범대학교와 사마르칸트 외국어대학교에서 K-POP 댄스 배우기, K-Food 만들기, K-Beauty 체험 등 우리 대학의 전공을 기반으로 한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지 학생들과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아리랑요양원, 고려인문화협회, 한국어교육원을 방문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되새기고, 전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한국어의 우수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타슈켄트 사범대학교 및 사마르칸트 외국어대학교와의 협약식을 통해 지속적인 학술 교류 및 K-Culture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학생에게는 향후 상호간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추가적인 글로벌서비스러닝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성대학교의 '글로벌 서비스 러닝' 프로그램은 본교 재학생들의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배양하는 기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성대학교는 지속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연성대학교, 고용노동부 주관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및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선정



연성대학교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및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연성대학교는 고교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들에게 진로 탐색 및 상담,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후 관리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연성대학교는 AI 기반 직업·진로 탐색, 개별 컨설팅 상담, 심리 안정 지원, 개인 맞춤형 포트폴

리오 설계를 통해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취업활동계획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에 맞춘 직업훈련 및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은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 및 지역 기업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졸업생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연성대학교는 졸업생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성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정재은 센터장은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사업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은 데 이어, 2025년부터는 고교생과 졸업생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의 진로 개발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성대학교는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지역청년은 물론 대학재학 단계부터 졸업 후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취업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본교,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선정

본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에 경기도 내 33개 대학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 아침 식사 문화를 확산하여 건강 증진과 학업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추진됩니다.

본교에서는 3월 18일(화)부터 12월 20일(토)까지, 매주 화·수·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학생식당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재은 학생취업처장은 "본교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 복지를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재학생들의 기호를 고려한 다양한 메뉴와 양질의 식단을 제공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관

지난 5월 14일(수) 연성대학교 연곡도서관은 '자연과 함께 하는 도서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리뉴얼한 연곡도서관 재개관 오픈을 진행하였다.

이날의 행사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서, 개관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우리 대학의 권민희 총장, 김운수 교학부총장, 김진배 산학부총장 외 여러 처장들과 교수들이 참석하였으며, 안양문화고등학교 엄홍중 교장과 윤경희 교감, 한국양서파충류협회 홍보대사 가수 아웃사이드, 한국관상생물학회 이철주 이사가 귀빈으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날 참석한 권민희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도서관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전통적인 공간으로서도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당부하였다.

새롭게 조성된 연곡도서관은 커뮤니티라운지를 중심으로 대학내외의 세미나, 특강 등이 열리는 '함께하는' 공간과 더불어 자연을 배경으로 휴식하고 독서하는 자리를 층별로 마련하였으며, '혼자만의' 독립된 독서공간도 도서관 곳곳에 배치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연곡도서관 1층과 3층에 자리잡은 '힐링동물존'에는 카멜레온, 거북, 드래곤 등의 동물들이 도서관의 새 가족으로 함께 하게 되었으며, 관련 학과를 통한 '동물매개치유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새롭G 연성캠퍼스 3년 연속(2023~2025) 선정!

본교는 경기도청에서 도민의 수준 높은 평생교육 제공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수탁 사업에 2023년부터 2025년에 걸쳐 3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권민희 총장님은 "직무 중심의 열린 평생교육과정을 통해 생애 전환기 교육을 강화하고 생산적인 신중년 양성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2025년에도 우리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품질 차별화된 교육 제공을 통해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브랜드 확립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교는 2023년 우수기관 표창, 2024년 감사장 표창 등 우수한 성과로 지난 2년 간의 새롭G 연성캠퍼스를 운영하였으며, 2025년에는 5060세대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AI활용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반려동물 헬스케어 전문가 양성과정, 시니어 뷰티 모델 양성과정의 3가지 전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집은 4월 초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관련 문의는 평생교육원(031-441-1090, 1037)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사랑으로 이어지는 삶.



연성대학교(총장 권민희)는 도의교육(道義教育), 노작교육(勞作教育)의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는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장기기증 홍보 및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장기기증은 유교적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매우 거부감이 큰 운동이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을 기다리며 고통과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누군가는 장기기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1991년 설립되어 홍보 및 캠페인,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현재 100만 여명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를 모집하였고, 970여 건의 생존 시 신장이식수술을 진행하여 환우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는 등 생명나눔의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매년 우수한 장기기증 홍보 활동을 한 단체 및 기여자에게 감사패 및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는데 2024년도 우수 단체와 기여자로 연성대학교와 연성 RCY 동아리가 선정되었다.

이번 감사패 및 감사장을 수여하기 위해 대학을 찾은 장기기증운동본부 김동엽 상임 이사는 "장기기증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연성대학교처럼 열정적으로 참가한 단체는 드물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특히 수여자로 참석한 RCY 동아리 최효정 학생은 본인의 "아팠던 친동생도 누군가로부터 기여 받은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지금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며 이러한 운동에 함께한 것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를 계기로 연성대학교와 장기기증운동본부는 협약식을 맺고 향후 다양한 협업으로 장기기증 문화 확산과 홍보에 함께 하기로 하였다. 장기기증은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으며 사람으로서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이러한 모범적이고 숭고한 사랑이 계기가 되어 사랑의 향기가 널리 퍼져 나가길 기대해 본다.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새롭G 연성캠퍼스” 입학식 개최



연성대학교 평생교육원은 '2025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새롭G'입학식을 개최했다. 연성대학교는 올해 3월 '2025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GCC 사업 수탁기관'에 3년 연속 선정되었다. 연성대학교(총장 권민희)는 지난 5월 10일(토) 오전 11시, 창의교육센터 1층 인스퍼레이션홀에서 2025년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새롭G 연성캠퍼스 입학식을 개최했다. 평생배움대학이란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평생배움대학 GCC사업'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열린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대학의 평생학습 인프라를 활용하여 도민의 배움욕구의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연성대학교에서는 본교의 우수한 실습실과 장비 등을 이용하여 올해도 11월 말까지 지원을 한다.

이번 입학식에는 연성대학교 평생교육원 김미영 원장을 비롯해 ▲평생교육원 책임교수 박은숙 교수(호텔관광과) ▲AI활용 콘텐츠크리에이터과정 책임교수 김성근 교수(영상콘텐츠과 영상콘텐츠제작전공) ▲반려동물헬스케어전문가과정 책임교수 배은진 교수(반려동물보건과) ▲시니어모델뷰티과정 책임교수 김희선 교수(뷰티스타일리스트과 메이크업전공) ▲이승민 교수(경영학과) ▲김병년 교수(사회복지경영과) ▲평생배움대학 2기 회장 심우태 학습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입학식은 김미영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선배 학습자인 심우태 회장과 '선배와의 만남'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후 평생배움대학의 교육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 소개, 학교 시설 안내 및 질의응답 시간 등이 진행되며 입학생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김미영 평생교육원장은 "연성대학교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2023년부터는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운영을 통해 50~60대 성인학습자 200여 명에게 실질적인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해왔다"며, "2025년 새롭게 선정된 '새롭G 연성캠퍼스'는 생애전환기에 있는 중장년층이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과정 종료일까지 연성대학교 평생교육원이 모든 면에서 최상의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새롭G 연성캠퍼스'는 ▲시니어뷰티모델 양성과정 ▲AI 활용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반려동물 헬스케어 전문가 양성과정 등 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 역량을 키우고 자격증 취득 및 경력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성대, '2025년 재직자 AID 집중과정 : AI 뷰티 테크' 사업 선정



연성대학교(총장 권민희)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재직자 AID(AI·디지털) 집중과정 : AID 묶음강좌' 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은 일반대 포함 전국 10개 대학만 선정된 가운데, 연성대학교는 '뷰티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AI 뷰티 테크' 프로그램으로 진입에 성공했다. 연성대학교는 건양대학교 및 메가존클라우드, 포인블랙, 토니앤가이코리아, 아이디뷰티, 헤어더뷰 등 6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AI를 활용한 헤어디자인' AI기반 고객 맞춤형 헤어케어 AI를 활용한 헤어샐롱 경영&마케팅 등 3개 묶음강좌로 구성된다.

이번 사업은 헤어 산업 종사자들에게 AI와 디지털 역량을 제공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VR·AR 활용 헤어커트 디자인, AI 기반 퍼스널 컬러 분석, 생성형 AI를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 전략 등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은 K-MOOC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며, 매 학기 200명을 선발해 수강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강좌를 이수한 학습자에게는 통합 디지털 배지가 발급되며, 관련 자격증 취득 및 학점 연계 등 경력 개발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사전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협약업체 30세 이상 재직자가 우선 선발되며, 궁극적으로는 미용업계 종사자들의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성대학교 권민희 총장은 "AI·디지털 기술과 뷰티 산업을 접목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미용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것"이라며 "산학 컨소시엄 협력을 통한 AI·디지털 평생학습지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연성대 우수강의 교수님의 생각을 통해 배웁니다.



사회복지경영과 김병년 교수님
(우수강의 교수상 수상)

초점을 둡니다. 학습은 권위적인 관계에서보다는 수평적 관계에서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교수를 나를 평가하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경직된 관계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교수를 나를 돕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좀 더 실질적인 학습지원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3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는 고민 유형은 무엇인가요?

저희 학과는 아무래도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과다 보니 비성인학습자 학과에서의 졸업 상담 고민과 많이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졸업 이후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장을 구하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도 많아 계속 적을 두고 공부를 계속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편 공부를 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의 학교를 진학하면 계속 잘 해나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기도 합니다. 아울러 졸업 이후 취업에 대한 고민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성인 학습자들일수록 취업에 불리한 경우도 많아 취업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함께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인학습자들은 건강과 관련된 이슈들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있습니다.

4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편이라 학업도 장학금을 목표로, 개인적인 생활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정신없이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많은 경험과 지혜를 얻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더 다양한 경험과 기회들을 놓쳤던 것 같아 아쉬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내가 대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좀 더 나를 알아가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볼 것 같아요. 해외연수, 인턴,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과의 교류 등을 늘려보고 싶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좋아 하는지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성공의 방식이나 길을 의식하기보다 좀 더 다양한 성공의 방식과 길을 확인해보고 나에게 어떠한 점이 더 즐겁게 다가올 수 있을지 시도해보는 노력을 많은 학생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길 응원합니다.

5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 한 마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취업은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들마다 처한 현실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 취업에 대한 시급성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변화에 따라 내가 하게 될 취업의 모습은 한가지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하게 될 직업을 하나 정한다는 부담을 갖기 보다는 다양한 단계와 형태 및 방식들을 통해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보이는 젊은 시절의 다양한 경험들은 분명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직업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결이 될 것이고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내 앞의 어떠한 기회이든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직접 시도해보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도 언제든지 교수님들과 필요하시면 도움을 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6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도 얼마전에 들었던 말입니다.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인생이 내가 생각한대로 내가 원하는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무기력”하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실패와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일희일비하기보다 잘 버티시면서 자신의 속도에 맞게 차근차근 목표를 달성해나가기길 응원하겠습니다.

1 교수님께서는 어떤 강의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컴퓨터 활용, 무역학 원론, 온라인 유통 마케팅 등 입니다.

2 강의에 임하실 때 어떤 자세를 가지시나요?

학문적 의미로서의 수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졸업 후 직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황하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기에 제 학문적 경험 및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위주의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수업 내용 뿐만 아니라 고민과 진로 등 일상적인 대화도 많이 하고 있으며 그에 맞추어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3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는 고민 유형은 무엇인가요?

물론 가장 많이 상담하는 내용은 취업 관련 문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종 또는 직군에 근무를 해야하는지? 취업을 위해서 어떤 자격증과 노력이 필요한지? 희망 연봉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창업을 하고 싶은데 많이 어려운지? 등 졸업 후 취업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이 합니다. 우리가 취업할 때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면접입니다. 기본적인 인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를 면접관들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 즉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은 전공 자격증(전공 지식)과 컴퓨터 활용(업무 진행) 관련 자격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영학과 김동환 교수님
(우수강의 교수상 수상)



4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신가요?

여행을 많이 다녀보고 싶습니다. 학과 공부, 논문 등으로 많은 해외 여행이나 국내 여행을 많이 못 가 봤습니다. 또 그 여행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또 전공 책 말고 재미있는 영화와 만화책도 많이 읽고 싶습니다.

5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 한 마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람은 누구나 한가지 이상 잘하는 것을 타고 난다고 합니다. 본인이 인지하던지, 남들이 그렇게 평가하던지. 만약 잘하는 것이 없다면 평소 흥미를 느끼거나 좋아하는 것이 있는지 관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거나 재미있어 하는 직장에 취업하게 된다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 능률면에서 효율면에서 많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윗 상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 받게 되어 승진이나, 급여 인상 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창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좋아하거나 재미있어 하는 직종으로 하시면 보다 좋은 성과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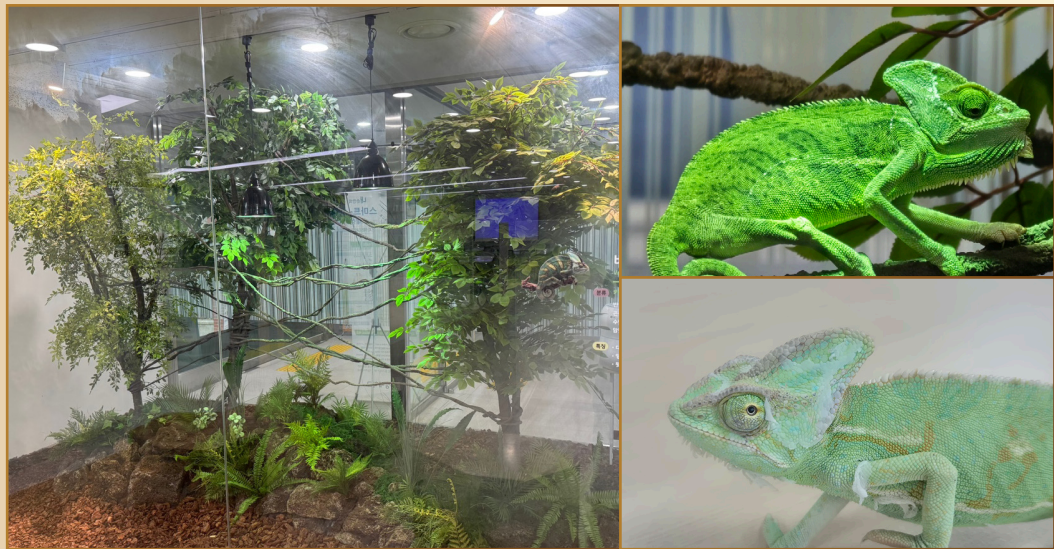
6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온다' 흔히 사람에게는 일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온다고. 노력하지 않은 상태라면 설령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를 잡을 순 없을 것입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기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 때, 다가오는 그 기회와 우연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공간의 즐거움, 도서관 재개관을 맞이하다.

연성대학교 연곡도서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관하였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은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닌, 공간의 의미와 활용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고 공부만 하는 공간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살아 있는 생명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연곡도서관은 총 3개 층으로 나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층별로 뚜렷한 특징과 목적을 갖추었습니다.



우선 1층은 입구를 지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푸른 공간들이 있습니다. 베일드 카멜레온 '파스컬'과 '파스텔'이 눈길을 끄니다. 조용히 몸 색깔을 바꾸며 앉아 있는 이 작은 파충류 친구들은 많은 학생들에게 호기심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층은 다양한 도서와 자유 열람 공간이 조화를 이루며, 기존보다 넓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서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정보자료실이며 커뮤니티 라운지와 있습니다. 신간 도서, 베스트셀러, 전공별 교수 추천 도서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여러명 단위로 앉아 공부할 수 있는 협업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층은 학습을 위한 기능이 더욱 강화된 공간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조용한 열람실과, 팀 프로젝트나 그룹 스터디를 위한 스터디룸이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의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유롭게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는 창밖을 보며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배려된 인테리어 또한 인상적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밝고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좌석이 배치되어 있어 이용 만족도가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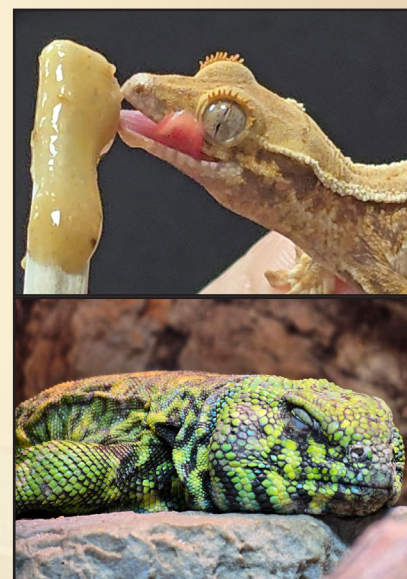
3층은 이번 리모델링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학교 뒤편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넓은 통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으며, 창가 옆에는 폭신한 소파가 비치되어 있어 독서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공간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3층에는 비어디 드래곤 '심바'와 설가타 육지거북 '연곡'이 머무는 대형 사육장이 마련되어 있어, 살아 있는 동물들과 자연스럽게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조용한 학습 공간 속에서 동물들과 함께 숨 쉬며 공부한다는 점은 학생들에게 큰 흥미와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역시 3층에 새롭게 조성된 연성대학교 동물매개치유센터(Animal Library Zone)입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동물을 통한 정서적 치유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센터에는 다양한 동물 친구들이 함께하게 되었는데, 페루비안 기니피그 '쿠크', 콘스네이크 '백설', 크레스티드 게코 '골드'와 '푸린', 오네이트 유로메스틱스 '메로나'와 '곽두팔', 레오파드 게코 '키커'와 '라라', 걸프코스트 빅 스테틀 '터보', 그리고 오키나와 소드테일 뉴트 '히카리', '포카리', '숫카리', '카리나', '카리스마'까지 총 10종의 동물들이 이곳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동물매개치유센터는 정기적인 사육관리와 더불어, 연성대학교와 협력하여 동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단순히 책을 읽기만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번 연곡도서관의 리모델링은 학습과 독서, 휴식, 그리고 생명과의 교감을 하나의 공간에서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별한 시도입니다. 학생들은 "어? 도서관에 동물이 있어?"라는 호기심과, 기니피그, 거북이, 레오파드 게코 같은 작은 동물들을 보며 "귀엽다 만져보고 싶다", 친구와 함께 동물을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으며 도서관이 더 즐거운 공간이 되는 계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도서관을 더 자주 찾고, 더 오래 머무는 모습도 눈에 띄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롭게 재탄생한 연곡도서관에 방문하여 작고 귀여운 생명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조용한 열람실에서 책장을 넘기며, 옆에서는 카멜레온이 눈을 깜빡이고, 거북이가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는 경험은 결코 흔하지 않은 기회입니다. 책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고,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연곡도서관. 지금, 그 특별한 공간에서 새로운 독서 여정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YEONGGOK LIBRARY

졸업 앞둔 연성대학교 학생들이 취업 고민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맞춤형 해법

졸업을 한 학기 앞둔 연성대학교 학생들은 요즘 취업 준비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근 기업들은 신입사원에게도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요구하고 있어, 이론 중심의 학습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성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학년별 맞춤 로드맵과 집중 컨설팅 프로그램, 그리고 산학 연계 실무 체험 기회를 차례로 마련하며 학생들의 자신감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담당자를 만나 학생들이 실제로 겪는 고민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책을 들어보았습니다.



1.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취업 고민은 무엇인가요?

A: 요즘 기업들은 ‘즉시 전력화 가능 여부’를 가장 먼저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이력서·자기소개서 항목을 채울 만한 실무 경험 사례가 부족해 어떠한 강점을 내세워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모의면접을 진행해보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 또는 ‘실제로 경험해본 적이 없어 답변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불안감 때문에 긴장 상태에 빠지는 모습이 흔히 보입니다. 전공 수업을 통해 쌓은 이론 지식이 실제 현장과 맞닿아 있지 않다고 느끼는 간극도 학생들의 자신감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 취업지원팀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나요?

A: 우선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졸업생 집중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하루 다섯 시간씩 총 15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1:1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전공과 관심 분야를 고려해 스토리라인을 재구성하고, 숫자와 지표를 활용해 성과를 구체화합니다.
- 모의면접 및 피드백:실제 면접관 환경을 재현해 답변 논리와 태도, 제스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별 리포트로 개선점을 안내합니다.
- 진로·커리어 상담:졸업 후 진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중장기 경력 설계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후 6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1급 대비 과정을 통해 엑셀·파워포인트 등 사무 자동화 능력을 집중 강화합니다. 많은 학생이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실무 역량뿐 아니라 지원서 경쟁력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3. 학년별 준비 로드맵과 온라인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1, 2학년 학생들은 진로 탐색 워크숍과 기업 견학 기회를 제공해 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3학년은 직무 역량 강화 세미나 및 인턴십 연계로 실전 경험을 쌓도록 지원합니다. 4학년은 앞서 말씀드린 집중 지원 프로그램과 자격증 과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Catch Job’, ‘Mid Job’ 등 주요 취업 플랫폼과 제휴해 AI 자소서 첨삭, 화상 면접 모의 실습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채용 공고를 검색하고, 실전 연습을 통해 면접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과거 3년치 취업 통계와 산업별 채용 동향을 분석해 수요가 높은 직무 정보를 안내하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4. 외부 기업과 협력한 실무 체험 프로그램이 있나요?

A: 제주항공과 함께하는 ‘항공 서비스 실무 체험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매년 선발된 재학생은 실제 제주항공 운항편에 탑승, 객실 승무원과 함께 서비스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합니다. 현직 승무원 멘토와의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면접 팁과 직무 노하우를 생생히 들을 수 있으며, 제주 박물관 방문 일정으로 서비스 분야와 지역 문화까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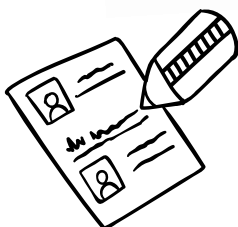
5.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보완 과제는 무엇인가요?

A: 2024학년도 취업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네트워킹 기회, 구체적 피드백, 자격증 취득 지원 부분에 특히 긍정적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집중 운영으로 홍보가 미흡해 참여 기회를 놓치는 학생이 있었고, 주중 일정과 겹쳐 일부가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점은 보완해야 할 과제입니다.

6. 마지막으로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취업은 결국 ‘정보와 경험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모의면접에서 받은 피드백을 기록해 두고, 매일 1시간씩이라도 반복 연습하면 분명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이 달라지고,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학생들의 취업 고민!



#job

연성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다각적 지원을 통해,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한층 더 준비된 모습으로 치열한 채용 시장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연성대학교의 거울 리베라의 비상 리베라가 남긴 이야기

연성대학교 대표 응원단 '리베라'가 지난 공연을 통해 다시 한 번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응원단 활동의 중심에 있는 리베라는 매년 교내 주요 행사와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며 학교의 열기를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3기 단원들의 첫 무대와 2기 단원들의 마지막 무대가 함께 어우러지며 더욱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공연 준비부터 무대 뒤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리베라 단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았다.

먼저, 조은채 단장에게 물어봤습니다.



Q1. 연성대학교 대표 응원단 리베라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단장: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성대 대표 응원단 리베라입니다. 저희 리베라는 다양한 학과들이 모여 치어리딩이라는 춤을 통해 체력을 키우고 타과 친구들과 친해지며 저희 동아리 부원뿐만이 아닌 학생들에게도 에너지와 힘을 주는 치어리딩 동아리입니다!

Q2. 현재 리베라는 어떤 활동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단장: 저희 리베라는 1학기에는 양지체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2학기에는 대동제를 중심으로 하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3. 리베라 단원은 어떤 방식으로 선발되며, 어떤 역량이나 태도를 중시하나요?

단장: 저희가 처음 면접을 진행할 때에는 따로 춤이나 기본동작들은 보지 않고 아무래도 단체로 진행되는 동아리이다 보니 연습 참여 정도를 제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치어리딩이라는 춤은 기본동작을 익히면 쉽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그런 태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Q4. 단장으로서 팀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단장: 아무래도 공연이 다 끝난 후 부원들이 저에게 '수고했다, 단장 덕분에 잘 끝낼 수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는게 잘 마무리한 느낌이 들어 가장 부듯한 것 같습니다!

Q5. 리베라 단장으로써 단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단장: 2, 3기 부원들 모두 양지체전 준비하면서 2기 친구들은 3기 알려주고 3기 친구들은 처음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따라와 줘서 너무 고맙고 수고했어.. 2기 친구들은 옆에서 도와준다고 너무 고생 많았고 고마웠어 3기 친구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같이 만든 리베라 잘 부탁해 너무 고생했구 화 많이내서 미안해.. 사랑해 리베라!

다음으로, 조은채 단장과 다른 부원들 모두에게 물어봤습니다.

Q6. 응원단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단장: 일단 저는 공연을 하는게 가장 매력적인것 같아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보시고 다른 학생들이 호응해주는 순간이 너무 매력적인것 같습니다!

단원: 춤보다는 평소에 많이 접하지 않는 장르라서 처음 해봤을 때 많이 어려웠지만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고 점점 동작들이 몸에 익숙해지면서 흥미를 많이 느끼고 응원단인 만큼 단원들과 팀워크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칼군무로 맞춰졌을 때에 쾌감이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Q7. 공연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단장: 저는 아무래도 안무 만드는게 가장 힘들었던것 같아요 3기 부원들은 처음이고 이러니까 쉬우면서 멋있는 안무를 창작해야하는게 어려웠는데 다른 영상을 보고 참고하거나 1기 선배들 영상에서 예쁜 안무를 따오거나 한것 같습니다

단원: 사실 동아리 특성상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예민하거나 지쳐있는 경우 의견 조율이 어려울 때도 있었고, 주어진 시간 내에 연습을 완벽하게 끝내야한다는 생각에 가장 지치고 힘들었지만, 끝내 무대를 서고싶다는 마음이 모든걸 이기게 해준 것 같고, 동아리 선배들과 친구들의 뜨거운 열기와 따뜻한 응원으로 함께 무대를 함으로써 또 한 번 도전할 수 있었다는 마음이 생겨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Q8. 공연 준비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음.. 새벽연습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연습하기 전에 같이 먹은 감자탕이나 연습실 가서 쉬면서 놀던 그 장면들이 공연 당일도 무척 기억에 남겠지만 그냥 언니 동생처럼 웃고 떠들면서 놀면서 연습한 그 새벽연습날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Q9. 리베라를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단장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단장: 한 학기동안 단장으로써 많은 인원들을 이끌고 정말 정말 고생하셨구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언니의 가르침에도 앞으로도 더 멋진 리베라가 되길~~!! 다음학기에도 같이 해요.

단원: 저희를 위해 항상 애써주시고 이 많은 인원 이끌고 가시는 게 힘들실 텐데 힘든 티 하나 내지

도 많으시고 항상 웃으면서 친구같이 장난 쳐주시고 저희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대학 새내기때 적응 안 되고 힘들었지만 리베라 3기 친구들과 다른 2기 선배님들 그리고 저희 은채 단장 선배님 덕분에 유일하게 즐겁고 뜻깊은 대학 생활이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공연이 끝과 시작이 되는 2기와 3기에게도 질문해보았습니다.

Q10. 이번 공연을 마지막 무대였다고 들었는데,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2기 부원: 작년엔 1기 선배들과 함께 무대를 섰던 게 잊고 제 같은데, 벌써 3기 후배가 생기고, 2기의 마지막 공연이라니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시원섭섭한 마음도 들고, 무대 위에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울컥하기도 하지만 이때까지의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고, 그 순간들이 모여 스스로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치어리딩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제 청춘의 한 페이지였고, 함께한 단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Q11. 응원단 활동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2기 부원: 그냥 학교 집을 반복하는 지루한 일상에 동아리 리베라를 하면서 타과 친구들과 이랑도 친해지고 같이 연습하고 밥도 먹으면서 제가 고등학교때부터 생각했던 대학생들이 리베라 덕분에 완벽하게 채워진것 같아 잊지 못할 대학생살을 만들어준것 같습니다.

Q12.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바람이 있다면?

2기 부원: 학교생활로 지친 몸과마음 동아리 활동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번뿐인 대학생살에서 동아리 리베라를 선택해준거에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동아리 활동으로 언니,동기,선배 들이랑 재밌는 추억 많이 쌓고 지내면 좋겠어요.



Q13. 이번 공연이 첫 무대였다고 들었는데, 소감이 어떤가요?

3기 부원: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느껴서 공연에서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단원들과 다 같이 여태 연습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온 거 같아서 너무 기쁘고 기쁜 만큼 다음 공연이 기다려지는 거 같습니다.

Q14. 리베라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3기 부원: 전부터 치어리딩 동아리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날 유튜브에서 연성대학교 치어리딩을 보고 너무 멋지다고 생각이 되어 꼭 치어리딩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다. 마음 먹었고, 결국 그 열정으로 성공적으로 면접을 끝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Q15. 앞으로 리베라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3기 부원: 선배님들께 배운 동작들을 바탕으로 부족한 점은 단원들과 함께 고쳐나가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성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무대에서도 누구보다 밝고 힘찬 모습으로, 여러분께 힘이 되는 리베라가 되겠습니다!

단장 조은채(헤어디자이너 전공), 2기 단원 이세연(관광영어), 김나영(유아교육), 김수진(스킨케어)과 3기 단원 우혜민(유아교육), 이혜원(보건의료행정), 장윤서(메이크업)이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리베라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기대가 되는 인터뷰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무대를 마친 2기 단원은 "치어리딩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제 청춘의 한 페이지였고, 함께한 단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며 리베라에 대한 애정이 보이는 말을 하였습니다. 첫 무대를 마친 3기 단원은 "다 같이 연습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온 거 같아서 너무 기쁘고 기쁜 만큼 다음 공연이 기다려지는 거 같습니다!"라고 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비록

하나의 공연은 끝났지만, 리베라 단원들이 함께 만든 노력과 응원의 기록은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무대를 향해 나아가는 리베라의 다음 발걸음을 신문방송국에서 응원합니다. 연성대학교 학우분들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5년 연성대학교 양지체전

뜨거운 햇살도, 무성히 내리는 비도 우리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

맑은 하늘 아래 환한 웃음꽃이 피어난 하루, 연성대학교 양지체전이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함께 뛰고, 응원하며 하나가 된 이 날은 단순한 체육 대회를 넘어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신문국이 마련한 '깡 없는 룰렛', '신문 제목 짓기' 부스와 메이크업 전공 창업 동아리 TYCHE의 페이스 페인팅, 타투 스티커 등의 체험 부스, 그리고 헤어디자인 전공 동아리 H-CURA와 카페베이커리과가 진행한 다양한 부스는 큰 인기를 끌며 행사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경쟁보다는 화합, 승부보다는 추억이 중심이 된 양지체전, 그 생생한 현장을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무대 중앙으로
달려가고 있는
경찰경호보안과 시범단



뜨거운 햇볕 아래
축구 예선전을
준비하는 모습



맑은 하늘을 뚫고 나간 함성소리 양지체전 1일차

양지체전의 첫날은 화려한 개회식에 이어 군사학과 예도단과 경찰경호보안과 시범단이 준비한 화려한 공연으로 양지체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피구 준결승 시합, 줄다리기 예선, 농구 준결승 시합이 진행되었고, 더운 날씨에도 연성대학교 학우분들의 응원과 열정으로 힘차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총학생회 화도가 준비한 미션 이어달리기를 진행하였는데, 학우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흥미진진한 경기였습니다. 댄스 동아리 CIEL, 연성대학교 공식 응원단 리베라가 열심히 준비한 멋진 공연으로 즐거운 체육대회에 더욱 열기를 올리며 계주 예선전을 끝으로 양지체전의 1일 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학생회와 총장님이 양지체전 개회식을
알리는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신문국의 '깡 없는 룰렛과 신문 제목 짓기' 부스



군사학과 예도단의 공연 모습



경찰경호보안과 시범단의 공연 모습



림보 이벤트를 즐기고 있는 모습



줄다리기 예선전



항공과 1학년이 준비한 댄스 공연

오늘도 열정은 계속된다 양지체전 2일차

2일차에는 첫날과 다르게 비가 내렸지만 양지체전의 열기는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비를 맞고 우비를 입은 채 발야구와 피구, 축구, 줄다리기 등 여러 경기와 결승전을 무사히 치렀습니다. 축구 결승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 휴식 시간에는 항공서비스과가 준비한 댄스 공연으로 다시금 열기를 올렸고, 계주 결승을 마치며 종합우승 시상식 및 폐회식으로 양지체전의 막을 내렸습니다. 신문방송국은 첫날에 이어 둘째 날에도 부스를 진행했는데, 비 내리는 날씨에도 학우 분들이 즐겁게 참여한 덕분에 즐겁게 부스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양지체전 2일차 축구 결승전



항공과 2학년이 준비한 댄스 공연

연성대학교 기숙사를 소개합니다

연성대학교 기숙사는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텔식 2인 1실 시스템으로 방 구조는 물론 세탁실, 공용 주방, 휴게 공간 등 기숙사 내 여러 공간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학생들은 공동체 안에서 효율적인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연성대학교 기숙사 내 주요 시설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일상에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들을 소개합니다. 각 시설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생활 패턴과 공동체 문화를 반영하는 장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전하는 연성대학교 기숙사 생활 이야기



항공서비스과 24학번 학생

1. 기숙사에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집이 학교에서 꽤 멀어서 통학 시간이 왕복 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아침 수업도 자주 놓치게 되다 보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 기숙사 생활 중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인가요?

학교와 가까운점입니다.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서 늦게 자도 수업에 늦을 걱정이 없고 수업이 늦게 끝나도 방에 금방 돌아올 수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 또 생활이 규칙적으로 잡히는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3. 생활하면서 느낀 불편함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공용공간이 가끔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방 같은 경우는 누군가 사용하고 나서 바로 정리를 안 하면 음식물 찌꺼기나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방치되면 위생이 걱정되기도 하고 벌레가 생기지 않을까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의 수도 제한적이라 이용하려고 내려갔는데 자리가 하나도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땐 기다리거나 아예 다음 시간대로 미뤄야 해서 그 점이 조금 불편합니다.

4. 세탁실은 주로 언제 이용하나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시간은 어떤가요?

보통 오전과 낮보다는 오후나 밤에 제일 많이 붐빉니다. 금·토일 밤은 더욱 더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평일 낮 수업 끝나고 한가할 때 이용하거나 오전에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5. 세탁실 이용 중 불편했던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가끔 누군가가 세탁이 끝났는데도 빨래를 안 꺼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세탁기 수에 비해 사용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돼 있으면 좀 난감합니다. 세제 자판기가 있는 건 좋긴 한데 종류가 한정적이라서 본인이 필요한 건 미리 챙겨 두는 게 좋습니다.

6. 방 청소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혼자, 분담 등)

룸메이트랑 미리 이야기해서 청소는 자연스럽게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버리는 건 한 주씩 번갈아 맡고 바닥청소나 욕실 정리는 각자 편한 시간에 나눠서 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가볍게라도 규칙을 정해두면 서로 부담을 줄이고 방도 훨씬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 처음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처음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룸메이트와는 처음부터 소통을 잘 해두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칙 같은 걸 미리 정하면 오히려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공간은 내가 쓰는 만큼 깔끔하게라는 생각으로 이용하면 다 같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지다보면 기숙사 생활도 나름대로 편하고 재밌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카페테리아 및 휴게실

생활관 3층, 9층, 12층에는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와 휴게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전자레인지와 냉장고가 비치되어 있어 간단한 음식을 데우거나 보관하는 데 유용하며 잠시 쉬어가거나 가볍게 끼니를 해결하기에도 적당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컵라면을 먹거나 도시락을 데워 먹는 등 일상 속 소소한 휴식을 즐깁니다.



E라이브러리

E라이브러리는 생활관 3층에 위치한 학습 공간으로 학생들이 조용히 공부하거나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내부에는 검색용 컴퓨터와 도서 열람대가 갖춰져 있어 과제나 리포트를 준비할 때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집중이 필요한 순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많은 학생들이 자주 찾습니다.



글로벌 라운지

글로벌 라운지는 생활관 3층에 위치한 여가 공간으로 탁구대와 포켓볼 등이 마련돼 있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운동이나 친구들과의 가벼운 놀이를 즐기기에 좋은 장소로 여가 시간에 잠시 머리를 식히기에도 알맞습니다.



체력단련실

생활관 3층에 위치한 체력단련실에는 러닝머신, 사이클 등 다양한 운동기구가 비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세탁실

세탁실은 6층(남학생용), 8층과 11층(여학생용)에 각각 마련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편리하게 세탁과 건조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일상 속 필수적인 공간으로 쾌적하게 관리되어 있어 많은 학생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정원 야외공간으로 마련된 하늘정원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마주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7.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생긴 나만의 생활 팁이 있다면?

세탁은 꼭 평일 오전이나 한가한 시간대에 하는 게 좋고 12시 이후에는 세탁을 못 하니 그 전에 얼른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식이나 물 같은 건 미리 방에 조금씩 쟁여두면 시험공부하면서 하나씩 먹기에도 좋아요. 또 이어폰은 필수입니다! 룸메이트랑 생활 리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조용히 음악 듣거나 영상 볼 때 필요하더라고요.

기숙사 생활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를 돌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쌓이는 경험과 일상은 어느새 특별한 추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할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입맛 따라 즐거운 미식생활의 시작 연성대학교 학식 메뉴 베스트

매일 점심시간, 연성대학교 학생 식당 앞에는 고민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줄지어 보입니다. “오늘은 뭘 먹지?”, “가성비 좋은 게 뭐지?”라는 질문은 많은 학생들에게 익숙한 고민입니다. 메뉴가 많다는 건 즐거운 일이지만, 때로는 선택의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럴 땐, 오늘의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 메뉴를 골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콤한 게 땡기는 날" 제육덮밥 (4,500원)

매콤하고 자극적인 맛이 당기는 날, 혹은 아침부터 유난히 피곤한 날이라면 제육덮밥을 추천합니다. 연성대학교의 제육덮밥은 4,5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푸짐한 양을 자랑합니다. 불맛이 살짝 나는 양념은 고추장 베이스의 매콤달콤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기에 충분하며, 흰쌀밥과 함께 먹으면 진정한 '한 그릇 똑딱' 메뉴로 등극합니다.



"건강하고 산뜻한 한 끼가 필요한 날" 포케(6,500원) (훈제오라·목살포케 +1000원)

요즘 건강식을 찾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는 포케입니다. 연성대학교의 포케는 신선한 채소와 곡물밥, 다양한 토핑이 함께 제공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구성이 6,500원이라는 점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나, 점심에 과식을 피하고 싶은 날, 혹은 깔끔한 한 끼가 당기는 날에는 이 메뉴를 선택해보세요. 먹고 난 후에도 속이 편안하고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부르게 든든하게 먹고 싶은 날" 세종대왕돈가스 (6,000원)

유난히 배가 고픈 날이라면, 고민 없이 세종대왕돈가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처럼 식판을 거의 다 덮을 정도로 큰 돈가스가 한 덩어리 통째로 제공되며, 얇지 않고 두툽한 고기 두께 덕분에 씹는 맛이 좋습니다. 바삭함 튀김옷은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기말고사 기간처럼 머리를 많이 쓰는 날, 혹은 긴 수업을 앞두고 든든한 한 끼가 필요할 때 세종대왕돈가스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입안 가득 풍미가 필요한 날" 육회비빔밥 (5,500원)

신선한 육회와 채소, 고소한 참기름 향이 어우러진 육회비빔밥은 특별한 한 끼가 당길 때 제격입니다. 연성대학교의 육회비빔밥은 5,500원의 가격에 퀄리티 있는 재료와 푸짐한 구성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육회의 부드러운 식감과 매콤달콤한 양념이 따뜻한 밥과 어우러져 입안 가득 풍미를 선사합니다. 한 끼 보양식처럼 느껴질 만큼 든든하고 깔끔한 메뉴로, 나를 위한 작은 선물 같은 식사가 필요할 때 추천합니다.



"달콤하고 든든한 한 끼가 당기는 날" 닭강정 오므라이스 (5,500원)

부드러운 오므라이스 위에 달콤 짭조름한 닭강정이 오른 닭강정오므라이스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조합입니다. 5,500원의 가격에 든든한 양과 조화로운 맛을 자랑하며, 가볍지 않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한 끼로 인기가 많습니다. 촉촉한 닭강정과 부드러운 계란의 조합이 입안을 편안하게 감싸주며,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좋은 선택이 됩니다.



‘천원의 아침밥’ - 1,000원의 행복

연성대학교는 학생들의 건강한 아침 식습관 형성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에게 신선하고 다양한 메뉴의 아침 식사를 단돈 1,000원에 제공하며,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장소는 학생복지센터 1층 교직원 식당이며,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부담 없는 가격에 든든한 아침을 챙길 수 있어 많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바쁜 일상 속 아침을 거르기 쉬운 대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연성대학교 ‘천원의 아침밥’은 매일 지정메뉴로 메뉴가 달라지며 이 중, 학생들에게 제공된 메뉴들 가운데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03.18.(화) 제육비빔밥, 미역국, 볼어묵볶음, 포기김치



2025.03.19.(수) 닭강정, 백미밥, 고로케&케찹, 포기김치



2025.03.20.(목) 돈가스카레덮밥, 후랑크햄볶음, 우동국물, 포기김치



공간시간에 있을만한 HIDDEN PLACE를 찾아라

우주공간 때문에 막막했던 적 다들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텅-비어버린 우주공간, 연성대학교에서는 이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중간에 텅-비어있는 시간표 때문에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일도 있지 않아 주변 벤치에서 시간 보내자하니 지루하고 그렇다고 도서관에서 있자니 너무 조용해서 눈치 보이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첫 번째, 맛있는 디저트 먹으면서 카페플래닛37에서 시간을 보내자!

위치 : 학생복지센터 지하 1층 / 운영시간 : 08:30 ~ 19:00

집에서는 도무지 집중이 안 되고, 도서관은 너무 조용해서 부담스럽고 이렇게 누구나 한번쯤은 어디를 가야하나 이런 고민 한 적이 있으실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나 과제를 하기 위해 혹은 잠깐의 여유를 즐기 위해 찾는 곳이 바로 카페인데요. 연성대학교 학생이라면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학생복지센터에 위치한 Gem 카페가 있습니다. Gem 카페는 학교 내에 있는 카페로 학생들에게 편안한 스터디 공간과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넓고 아늑한 환경에서 공부하거나 쉴 수 있으며,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Gem 카페에는 1인석이 마련되어 있어 그런 부담없이 과제를 하거나 책을 읽기 좋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크게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공강 시간에 이곳을 찾는 학생들 중에는 조용히 개인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Gem 카페]

두 번째, 세미나실에서 학업에 집중하면서 시간 보내자!!

위치: 문화2관 3층 / 운영시간 : 10:00~18:00

세미나실? 문화관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니라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미나실은 문화2관 내부에 위치한 강의실로 특정 요일에 수업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문이 개방되어 있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도 가끔 시간이 날 때 과제하거나 친구들과 수다 떨 때 이용하는데요. 세미나실은 일반적인 강의실과 달리 이곳은 수업 외 시간에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거나 혹은 조용히 노트북을 펴고 과제를 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학생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좌석은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책상마다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어 편리하며 무엇보다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강 시간을 보내기에 좋습니다. 학교 안에서 조용하고 안정적인 공간을 찾고 있다면 문화2관 세미나실 한번쯤은 들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2관 세미나실]

세 번째, 커리어 라운지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자!

위치: 학생복지센터 지하 1층 / 운영시간 : 09:00~17:00

Gem 카페 바로 옆 조용한 분위기의 또 다른 공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커리어 라운지입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자주 과제를 하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저도 노트북 안 가져왔을 때 과제하기 위해 종종 이용하는 곳인데요. 커리어 라운지는 얼핏 보면 도서관과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다양한 책을 읽거나 개인 노트북을 가져가 과제나 공부하는 공간이라면 커리어 라운지는 책은 없지만 책상마다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어 노트북이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재학생 인증만 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덕분에 집중해서 할 일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공간입니다. 과제를 해야 하는데 노트북이 없거나 조용한 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적합한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널널한 시간,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커리어 라운지를 한 번쯤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커리어라운지]

여름날 학교에서 듣기 좋은 playlist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연성대학교 재학생분들은 여름 분위기를 즐기시고 계시나요? 여름이라는 계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계절보다는 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 25년의 여름을 더 시원하게 즐길 수 있게 학교 속 휴식 장소들과 어울리는 노래를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연성대학교 학생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가사도 적어보았습니다. 더운 여름,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 듣다가 지칠 때 노래 들으면서 즐겁게 학교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초록 잔디와 파란 하늘, 여름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동장에 앉아만 있어도 재충전되는 운동장 풍경입니다. 이렇게 청량한 풍경에 어울리는 노래로 이승기의 Smile Boy와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를 추천해 봅니다. 밝은 멜로디와 희망찬 가사로 학교생활에 지친 재학생분들이 재충전하기 좋은 노래입니다!

여름아 부탁해,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나의 사랑을 이루게 해줘
많이 힘겨웠던 나의 지난 추억 버리게.."

Smile boy, 이승기

"happy! in your smile! 더 크게 웃어봐
나는 법을 잊은 것뿐야 날개를 펴고 가슴을
펴고 힘껏 날아올라봐
내가 있잖아 영원히 함께할 내게 꿈이 있잖아
힘을 내봐 용길 내봐 내려면 할 수 있어"

GEM 카페

새롭게 재단장한 GEM 카페 이용해 보셨나요?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학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공간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스터디룸에서 시원하게 공부할 때, 이 카페에서 들을 만한 노래로 엔플라잉의 블루문과 블랙핑크의 포에버영을 추천드립니다. 잔잔하지만 섬세한 가사를 가진 노래로 공부하다가 지치실 때 한 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blue moon, 엔플라잉

"이 순간이 잠시라면 영원히 멈춰 버리자
지겨워져도 괜찮아 들어 줘 나의 Blue Moon"

Forever young, 블랙핑크

"떠나지 마 just stay 지금 이 시간을 멈춘
채 너와 함께라면 난 I could die in this
moment"

잔디광장

문화관과 도의관 사이에 위치한 잔디광장 가보셨나요? 잘 가꾸어진 수목림으로 사계절 내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캠퍼스의 랜드마크가 바로 잔디광장입니다. 넓은 정원과 한가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밥 먹고 나서 소화시킬 겸 산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서 듣기 좋은 노래로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과 이무진의 청춘만화를 선정해보았습니다. 푸른 정원과 어울리는 가사들로 가득한 노래이니 휴식하시면서 한번 들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춘만화, 이무진

"지나면 아련한 만화 그래서 찬란한 우리가 기
다린 미래도 우릴 기다릴까 분명한 건 지금보
다 환하게 빛날 거야 아직 서막일 뿐야"

비밀의 화원, 아이유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 나네"